

茶

28 제 534호
불기 2549년 7월 13일 수요일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 culture



나만의 차로 간편하게

<세가지 색 차...> 퍼낸 권혁람씨에게 듣는 '차 즐기는 법'



#허브나 꽃차로 컷걸음을

차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스민차나 장미차 등 향이 있는 차를 마셔본다. 향을 즐기다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차에 대한 흥미도 일궈질 수 있다. 녹차와 홍차, 우롱차 등에 허브 차 혹은 오렌지나 레몬 껍질을 잘게 썰어 건조한 것을 섞어 마셔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중국 홍차에는 라벤더나 캐모마일이, 인도 다즐링 홍차에는 장미꽃잎이 잘 어울린다. 요즘 같이 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아이스티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뜨거운 물로 만들기: 2컵 분량의 끓는 물에 2큰술의 홍차를 넣은 뒤 5분간 우려낸다. 잎을 빼낸 뒤 유리잔에 담고 2컵 분량의 찬물을 붓는다.

▷찬물로 만들기: 주전자에 2큰술의 홍차를 넣고 찬물 4컵을 부어 적는다. 하룻밤 동안 냉장고에 넣어 잤다가 잎을 건져내고 다시 차게 보관한 다음 잔에 따라 얼음을 넣어 낸다.

▷선티(sun tea) 만들기: 2큰술의 홍차와 4컵의 찬물을 유리그릇에 담아 직사광선에 내놓는다. 3-4시간이 지난 뒤 잎을 걸러내고 얼음을 담은 컵에 부어 마신다.

#홍차 다양하게 즐기기

홍차는 19세기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해진 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차다. 티백이나 캔 음료 등으로 일반인들에게 친숙하며, 컷을 배합하는 방식이나 컷물에 넣는 재료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즐기는 방법 또한 다양하다.

▷레몬: 홍차에 레몬을 넣으면 색이 약간 얼어지지만 짙은맛이 감소해 맛은 더욱 깔끔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레몬을 너무 오래 담가두면 오히려 짙은 맛이 강해진다.

▷설탕이나 시럽: 단맛을 원할 때는 설탕을, 달콤한 향을 더하고 싶다면 메이플 시럽이나 바닐라향 시럽을 넣으면 된다.

▷우유: 우유는 홍차의 강한 맛을 부드럽게 만들며 고소함을 더해준다. 밀크티를 만들 때 쓰이는 우유는 저지방 우유가 적당하다. 실온에 두었던 우유나 전자렌지에 데운 우유를 사용하면 홍차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다.

▷젼, 마일레이드: 단맛에 과일향의 풍미까지 느낄 수 있다. 홍차에 젼 넣은 것을 흔히 '러시안타'라 부르는데, 러시아에서는 진하게 우려낸 홍차에 젼과 보드카 등을 넣어 마신다.

"차(茶)라고 하면 격식을 차려서 마시는 것, 가까이 하기 힘든 것이라는 선입관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차는 특별한 격식을 차리지 않고 마셔도 삶에 여유와 행복을 줍니다."

최근 <세 가지 색 차 이야기>를 펴낸 권혁람씨(하우스서피 Tea & Cake 대표). 1970년대 MBC 아나운서로 활동하다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간 권씨는 그곳에서 서양의 다양한 차 문화를 접하며 차의 매력에 빠졌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티샵(tea shop)'을 운영하며 '차 마시는 즐거움'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권씨에게 '나만의 차 즐기는 법'을 들어본다. 여수령 기자



사진제공=하우스서피 Tea&Ca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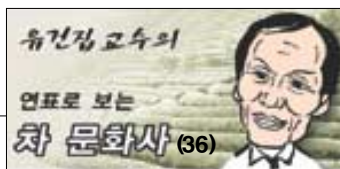
이런 댐 이렇게!

▷차 보관하기

차를 잘 보관하려면 밀봉된 주머니나 불투명한 세라믹 용기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많은 양의 차를 구입했다면, 가끔 털어낼 수 있는 큰 용기와 매일 사용하는 작은 보관 용기에 나누어 담는다. 햇빛이 들지 않는 건조한 곳에 두며, 강한 향이 나는 차는 다른 차와 함께 보관하지 않는다. 선반에서는 1년 6개월~2년 정도 보관이 가능하지만, 처음의 향을 즐기기 위해서는 4~6개월 내에 마시는 것이 좋다.

▷젼주전자 보관하기

젼주전자는 사용 후 잘 행구어 얹어놓고 물기를 빼 준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귀뚜라미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바닥에 설탕을 담거나 푸경을 열어둔다. 차향이 밴 젼주전자는 치약이나 소다를 수건이나 부드러운 수세미에 조금 묻혀 닦아 준다. 주전자 주둥이는 가느다란 나무젓가락 등에 천을 말아 고정시킨 후 닦아 준다.



조선시대 ①

나라의 제도가 정비되고 유교적 학문이 사회를 이끌어 안정되니 자연스럽게 풍류적 기풍이 일기 시작했다. 정철과 윤선도의 등장은 바로 그 좋은 예로, 이들은 오랜 작가생활 속에서 차를 즐겼다. 이런 기풍으로 한편으로 외방(外防)에 힘쓰지 못하여 인진왜란이라는 국가적 환란을 겪게 된다. 전란으로 인해 남녘의 차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많은 다농들이 생산 현장을 지키지 못했다.

더구나 왜구들이 자기장을 강제로 납치하고 수많은 다기들을 훔쳐갔다. 이런 상황은 선비다품의 퇴조를 가져왔고, 사찰의 차생활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래도 선가(禪家)에

갔다.
③ 취미대사(1590~1668): 부유와 벽안대사에게 수학한 선학(禪學)의 대가로, 다시를 남겼다.
④ 윤선도(1587~1671):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호연정(浩然亭)에서 차를 마시는 풍류를 누린 차인이다.
⑤ 김우옹(1540~1603): 퇴계 문인으로, 다시를 남겼다.
⑥ 중관대사: 임란 때 승병장으로 활약했고 차를 즐겨 다시를 지었다.
⑦ 백곡대사: 차를 즐겨 마셨으며 다시가 여럿 전한다.
⑧ 용명우: 명대 차인으로 <나개 다기>를 지었다.
⑨ 주교: 명대 학자로 도공과 도도에 관한 <양선명호계>를 남겼다.

조선-전란으로 선비다품 퇴조, 다승 출현 중-명인 명품 계속 배출 日-황금다실 조성

서는 조금씩 자급하여 쉬지 않고 차 문화를 이어갔으며 이름 있는 다승이 출현한다.
중국은 차의 주산지인 장강(長江) 이남의 강소, 복건, 광둥, 광서 등을 중심으로 명인 명품들이 계속 배출됐고, 다서도 꾸준히 저술했다.
일본은 천리후의 활동이 왕성했으나 풍신수길의 차에 대한 태도를 검박을 바탕으로 하는 차인들과 달리 황금다실을 짓는 등 사치스럽게 변했다.

⑩ 황일정이 쓴 것으로 신·구의 차 이름 백여종씩을 실고 있다.
⑪ 원광도가 찬술한 용정차와 천지차에 관한 기록이다.
⑫ 포르투갈 사람 버리나니의 글에 일본차에 관한 설명이 전한다.
⑬ 나숙 선사가 술과 차를 의인화하여 쓴 이천여지의 글이다. 이보다 먼저 중국 왕부의 <다주론(茶酒論)>과 <다주사문(茶酒四問)> 등이 있다.
⑭ 수길의 특별한 배려로 크게 성장했다.
⑮ 임란 중 우리 문화계 강탈과 도중에 출입할 때부터 차를 마셔 다시 몇 편이 전한다.
⑯ 김육(1580~1658): <유원총보(類苑叢寶)>에 차에 관한 기록을 남

한 국	중 국	일 본
1578 다시(茶時)를 행하다(정원이 건의)	① 용명우(熊明遇), 주고기(周高起) ②	1578 리후가 수길의 다두(茶頭)가 됨
1580 정철(鄭澈)이 강원도 관찰사 부일 ①	1580 사시육상록(육염)	1579 일본인의 음다 ①
김육(金堉)의 출생 ②	1582 민대기(閔大記) 영음산-무이차를 높이 평가	일본술차기 ②
1584 취미(趣味) 대사 ③		1580 수길의 '황금다실'
올곡의 죽음		
1587 윤선도(尹善道)의 출생 ④		1586 수길의 상림기(上林家) 방문 ③
⑤ 김우옹(金宇頤)의 활동 ⑤	1591 <사물잡주(事物雜珠)> ⑥	1587 수길의 집권
1592 임진왜란 발발		1589 차생선 농가 부역 면제
관례 올기에 절다(嚼茶)가 나옴	1595 다록	④ 도공님, 도가지 강탈 ④
1593 중관(中觀) 대사 ⑥	1597 <서호기술(西湖記述)> ⑦	⑤ 우치차의 변성
1597 정유재란	장대의 출생	
1598 이순신의 전사		
백곡(白谷) 대사 ⑦		



길성 부녀(父女) 도예전

보다완, 도도야와완을 비롯해 길기정씨의 자색다기세트, 자색다관 등이 전시된다. 길씨가 이도다완을 대구규모로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열린 개막식에는 국회의원 이계진씨와 원로 아나운서 이규환씨, 한국차인연합회 박권홍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시 기간 동안에는 매일 대구지역의 차회들의 행다시연이 마련된다. (053)426-1515

도예가 길성 부녀(父女)가 함께 여는 대규모 전시회 '정호대전(正浩大展)'이 7월 9-16일 대구 봉산문화회관 3층 대전실에서 열린다. 전시에서는 길성씨가 2000년 발견한 이도 흙으로 만든 이도다완과 이라

법비 내리는 곳! 부처님 광명이 충만한 곳!

동해사

어떤 소원도 이루는 곳.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소원 이루어 보세요

- ▶ 낙산사 홍련암 10분 소요
- ▶ 휴휴암 15분 소요
- ▶ 불탑사 10분 소요
- ▶ 바닷가 방생지 3분 소요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점심 공양 제공(예약에 한함)
답답한 분 상담은 혜명스님과...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곳 동해사
033)672-2900, 671-6079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지붕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슬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공개사)

서울: 011-379-0667
강원도: 010-3044-9708
경기도: 019-690-4018
충청도: 011-327-7697
경상도: 010-9697-8580
전라도: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평상,벤치탁자

◆ 평상 1500 - 820 - 400(mm) 가격: 150,000 발탁기: 150,000
1800 - 1130 - 480(mm) 가격: 220,000 발탁기: 150,000

◆ 벤치탁자 set 1500 - 1700 - 750(mm) 가격: 420,000 발탁기: 370,000

발탁기거나 탁자에 잔여 없고 주기적 도색(이나 관리가 필요 없애 반 영구적이며 목이 곡선이 부드럽고 비 운후 바로 건조 수 있는 제품. (목상, 기판, 위생용, 특수색상, 합판, 광택 등등에서 사용 할 수 있는제품.)

도매사: 지구산업 TEL: (063) 323-3010-1 FAX: (063) 323-3012
계좌번호: [농협] 505055-56-005933 예금주: 지구산업 학원로
전화주문시 무료배송 지역대리점 모집

세계최대 부처님 열반상

국운융창,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미암사에는 약수터 상단에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상 발바닥에 음자가 1만 6천여자가 새겨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열반상 몸속 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소불이 2만여불로 인등 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충남도지방 문화계 제 371호 소원성취기도도량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92.1%가 방출되어 성인병, 골관절염,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98년 도에 1과를 모셨는데 2004년도에 친견했을 때 자연적으로 3과로 증과되어,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도량입니다. 성지순례 오십시오. 모든 불자들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계항산 미암사
전화 041)832-1188, 832-1189 / 팩스 041)832-1187